



지하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다. 특히 곡물을 드리려면 다 쟁야 한다. 우리의 생각, 마음, 사고를 다 부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러질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쟁아져서, 밀가루처럼 부드러워지고,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c. 화복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다.

(a) 첫째,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지금은 양으로, 소로 드리지 않고 양금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합격해도, 생일이 되어도, 항상 감사가 체질되어야 한다.

(b) 둘째로 서원은, 이것을 꼭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서원의 예를 드리는 것이다.

(c) 낙헌제는 자원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예물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영적 서원이다. 이유가 없다. 조건이 없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도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낙헌제다. 자원제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화복이 이루어진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사의 인사와 예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

d. 속죄제는 무의식적인 범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한 제사였다. 각 사람은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실수와 사민의 실수는 다르다. 대통령이냐 장관이 저지르는 실수는 다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면 더 큰 예를 가지고 해결해야 했다.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드리는 예물의 대가가 달랐다.

e.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한 해결과,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사였다. 여기에는 반드시 화해와 배상이 필요했다. 남의 것을 훔쳤거나 남의 것에 피해를 주었으면, 그 이상의 것을 드려야 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2)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었다.

a.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부흥회 가고 세계렘넌트대회 가고 하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가. 화제와 같다. 뜨겁게 드리는 예배다.

b. 요제는 몸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다. 몸찬양을 하면 그게 요제가 될 것이다. 거제는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것,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받는 은혜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그게 거제다.

d. 전제는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한다. 구원의 길 같은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것과 같다.

3) 현대 교회에 와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 제도가 예배로 변했다. 지금 우리는 속죄제, 속건제, 반제, 안 드리지 않는가. 이 모든 과거의 제사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주일예배, 주일오후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다 역할이 다르다. 구역예배, 다방예배, 지교회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제사의 종류와 목적이 다 달랐던 것처럼 예배도 받는 은혜와 목적이 다 다르다. 그래서 많이 드릴수록 좋다. 전에는 제사가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365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②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번째 방법이 절기 제도였다. 레위기에는 7대 절기가 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 시대 교회에 주신 복음적 절기, 개혁신절로 바꾸어서 지키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명하신 것이 바뀔 수 있는가? 그렇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회막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가? 초대교회는 어떤가? 예수님 이후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나? 지금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당은 회당과 같다. 문화센터와 같은 곳이다. 성전이나 성막에 있는 지성소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 지역의 세상적인 문화를 바꾸는 센터다.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을 안 지키지 않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다. 회년 같은 제도도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우리교회의 5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했지 않나. 하나님은 이런 구약의 제도들을 두고 개인화시켜서,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지 않나? 세계선교대회, 세계산업인대회, 세계렘넌트대회다. 이 절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 번 정도 참여하면 영혼과 마음이 다 달라져 버린다.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대회에 참석 안 해본 사람은 백 번 말을 해도 와닿지 않는다. 이번엔 집중훈련을 위해서 오신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도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쉽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예배에 참석하고 훈련에 참석하면 환경이 바뀌고 주변 사람이 바뀐다. 산업인대회, 선교대회, 렘넌트대회를 가 보라. 가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있어 보라. 환경이 바뀌면 생각, 마음, 영혼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사명자들이 모이는 화요집회, 새기주수련회, 합속훈련에 가 보라. 환경을 바꿔 보라. 가면 되는 것이다. 가지 않으면 내 생각, 영혼은 절대 안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구약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남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 남자들이 바쁘니까 영적인 것에 참여를 안 하지 않나. 그러나 가장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앞장서서 참여하는 중직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을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대단한 일을 해가야 한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소중하게 만들어야 할 때, 세계복음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③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제도는 성일과 거룩한 안식의 해다. 그것은 안식일, 대속죄일, 안식년, 회년 제도이다. 현대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8일인 주일을 지키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회 같은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키어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8일 이기가 많이 나온다. 노아의 방주에 있던 가족이 8명이다. 8은 구원의 숫자다. 여덟째 날이 중요하다. 오순절 날도 여덟째 날이다. 안식 후 셋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했갈리지 마라. 우리는 7일이

아니라 8일을 지킨다. 안식 후 첫 날이다. 이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새 날이다. 7일이 아니라 새 날을 주셨다.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식일과 안식년의 제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 힘을 얻는 것이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다. 참 안식, 참 평안, 참 용기, 자신감, 응답, 치유를 다 얻는 것이다. 그 날이 바로 주일이다. 오늘날 안식을 알고 가는,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가는 성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보혈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 2. 레위기의 영적 제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영적 제도들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한다.

(1) 모든 제사 제도와 절기와 성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고린도후서 5:21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2 중간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2)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사무엘상 15:22이다.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데, 그 제사의 주인공을 잊어버렸다.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교회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으면서 제사만 지내는 것이다. 교회의 흐름에는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불순종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중 되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말만 안 들으면서 예배는 드린다고 한다. 그것은 틀린 예배다. 사무엘상 15:22에 뭐라고 했는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반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이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신앙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란다. 적극적인 경정이 필요하다. '지금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인수집사로서 역할을 해야 하겠는가.' 이런 적극적 경정, 적극적 임적이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름만 붙여놓고 형식적인 것만 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임직도 제사도 아니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즉, 제사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알지만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드릴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모든 죄와 사탄과 저주와 재앙이 깨끗이 영원히 확실히 떠나가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했을 때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4) 기타 제사제도의 특징을 따로 알아보자.

① 우선,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출애굽기 12:20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제사를 폐하지 않나? 조상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 조상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그 조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 이심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영적인 예배다.

② 제사의 조건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출애굽기 12:5에,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런데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③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이 제사제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상황과 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믿고 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종교가 된다. 아무리 복음이라 해도 항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게 성경적이다. 제사를 다 지내지만, 너무 가난한 사람은 밀을 드려도 된다고 했다. 비둘기 드릴만한 돈도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할 것을 강요하면 복음적인 것이 아니지 않나. 사정을 다 알고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 방법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5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앞으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다. 결론에서는 지난주에 말씀으로 주셨던 참사탕회화의 천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참사탕회화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첫째가 전도하는 교회, 둘째가 렘넌트 남은 자들의 교회이며, 셋째로 복음 때문에 희생했고 앞으로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루터기들이 모인 복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그러면 앞으로 50년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기도해야 할 천령과 기도제목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올-인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둘째, 전도복지의 모형을 만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셋째, 백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넷째,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로 파송하는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전심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다섯째로, 후대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예배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교육과 문화, 복지 시스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는다.

(3) 이 모든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key가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가득하고, 성령충만한 예배와 훈련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이 땅에서 첫 년의 응답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사, 이 축복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충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의 체질, 순종의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지혜로운 제자의 체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디. 아멘"